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http://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mailto: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http://www.webkam.org)

# Chang Bok Jung 정장복

Seok Hoon Seo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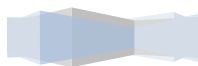
Chang Bok Jung, Korean representative preacher and worship scholar, contributed greatly toward the Korean church with the scholarly research in sermon and worship. His preaching theology is summarized as “A single heart of preaching of The Gospel”. He stated that as the Old Testament prophets worked whole heartily as they received the messages from God and delivered to the people, present preachers must try whole heartily as they witness and deliver the message to the people. Also, he focused more on the preacher’s character as a person rather than on the sermon itself. Furthermore, he focused strongly on the ‘Biblical and Logical’ preaching with the guidance of Holy Spirit. He also stated that his preaching form was analogical and logical and the sermon must be biblically centered. Chang Bok Jung shifted the scholarly understanding of worship in Korean churches and worked and studied to change the wrongful words that were commonly used within Korean church society.

## 들어가는 말

“설교란 무엇인가?” 필자가 설교학 수업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다. 현재는 한일장신대의 총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은 설교학 개론 시간에 위의 질문을 끊임없이 학생에게 던졌다. 그는 존 웨슬리의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라는 고백처럼 그는 한국교회의 설교강단의 갱신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였다. 특히 콕안런(Charles Allen Clark)교수가 집필한 『설교학』 이후 체계적인 설교학 교과서가 없던 때에 설교학과 예배학의 교제 집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그의 수고와 노력은 한국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정장복의 설교와 예배사상의 연구는 한국장로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알아보는 시작점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정장복의 설교 세계

### 1. 성인운반일념(聖言運搬一念)



정장복의 설교신학이 핵심은 성언운반일념(聖言運搬一念)이다. 이 개념은 구약성서의 선지자의 역할에 근거하며 개혁신학<sup>1</sup>의 사상에도 그 뿌리를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필요한 대상에게 운반하기 위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전하였다. 만약 그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 타락한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신이 성언운반일념이다.<sup>2</sup> 정장복은 이러한 사상이 입각해서 설교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보다는 누가 전달하느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sup>3</sup> 비록 설교자가 신학적인 바탕이 풍부할 지라도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할 때 그 설교는 영감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 경건과 성화의 삶을 실천해야 하며 진실한 인격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sup>

정장복은 설교자가 성언운반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명(召命)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시대를 잘 관찰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운반하는 방법과 형태에 민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말씀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되 말씀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성언운반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설교란 택함 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dynamic of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sup>6</sup>

### A. 분석설교

1 “... ”, 『...』, ( : , 2001) p. 15.  
 2 “... ”, 『...』, ( : , 2001) p. 13~14  
 3 “... ” 『...』, 1996. 12. P. 205  
 4 “... ”, 『...』, ( : , 2001), P. 87~88  
 5 “... ” P. 209~210  
 6 “... ” 『...』 P. 70

정장복은 자신이 내린 설교의 정의처럼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에 합당한 설교의 형태로 분석설교를 한국교회에 내어 놓았다. 분석설교는 에반스(William Evans)의 설교이론에서 착안한 것으로 논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설교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였다.<sup>7</sup> 그러나 논리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강조될 경우 비성경적 설교의 형태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장복은 성경중심이면서 논리를 유지하는 설교의 형태를 한국교회의 목회현장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 특징은 첫째, 설교의 주제는 반드시 설교의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 본문을 읽기만 하고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대로 가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주제는 주어진 본문에 노출되어야 한다. 셋째, 동기유발(why)를 시도한다. 넷째, 주제의 실천방안(how)를 제시한다. 최대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과(What then)을 제시한다. 여섯째, 정확한 결론을 내린다.<sup>8</sup>

정장복은 자신의 설교의 형태가 어떤 설교보다도 설교자의 노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설교의 형태라고 말하며 설교자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sup>9</sup>

### B. 성령중심의 설교

정장복은 시대에 맞는 성경적이면서 논리적인 설교를 주장하지만 설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자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설교자를 사용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자의 언어유희에 불과하다.”<sup>10</sup>고 한다. 설교준비에 있어서부터 설교가 끝나고 설교 이후의 결과까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함을 주장한다.<sup>11</sup> 그러나 설교자가 성령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성령님의 약속은 설교자의 정직과 신실함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조건적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sup>12</sup> 따라서 그는 설교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매 순간 감동되며 감동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설교자 자신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둘째, 설교자의 사역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sup>7</sup> William Evans, *How to Prepare Sermons and Gospel Addresses* (Chicago: Moody Press, 1954), 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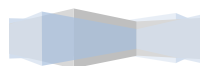
<sup>8</sup> , 175~177

<sup>9</sup> , 178

<sup>10</sup> , 351

<sup>11</sup> , 353~355

<sup>12</sup> , 357





주장한다. 넷째, 한국 교회의 신앙고백과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16</sup> 그는 한국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의 민족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토착화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빛나야 함을 강조한다.<sup>17</sup> 루터가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독일어 찬송을 사용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을 명심하며 한국교회도 우리의 정서에 맞게 예배와 절기를 키질 것을 주장한다.<sup>18</sup>

### C. 말씀과 성례전이 균형 잡힌 예배 .

정장복은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과 성찬성례전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존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춘 예배라고 말한다.<sup>19</sup>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찬식은 1 년에 2 회 혹은 4 회 정도를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실정이다.<sup>20</sup> 뿐만 아니라 일년에 4 차례 드리는 성찬식 또한 순서를 무시하고 집례자의 마음대로 분병분잔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장복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칼빈의 가르침대로 분병과 분잔의 순서를 지켜야’ 함을 주장한다.<sup>21</sup>

## 평가(공헌) 및 결론

정장복을 통해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강의와 교제를 통해 배우고 익혔다. 또한 그가 편찬한 “예배와 설교 핸드북”은 한국교단에 교회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으며 교회 절기에 따른 예배와 설교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서 한국교회의 예배와 설교에 질적 양적 성숙을 가져옴은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면관계상 다루지 못하였지만 설교학 사전과 예배학 사전, 등 강단 언어와 예배의 용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감으로서 강단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의 순화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한국교회에 분석설교라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장점을 보유한 설교의 틀이며 설교를 처음 하게 되는 선지생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설교의 형태이나 현대 설교학의 흐름에는 뒤쳐지는 경향을 보인다. 1970 년 Fred B. Craddock 의 “*As One Without Authority*”의 출간 이후 설교 전달형태가 연역적

<sup>16</sup> 『한국교회학』, (서울: 한국교회학연구원, 2000), 38~42.

<sup>17</sup> 『한국교회학』, 44.

<sup>18</sup> 『한국교회학』, 45.

<sup>19</sup> 『한국교회학』, (서울: 한국교회학연구원, 1999), 43.

<sup>20</sup> 『한국교회학』, 42.

<sup>21</sup> 『한국교회학』, 402.

방식에서 귀납적 방식으로 바뀌어 왔으며 현대 설교학이라는 이름하에 귀납적 형태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예배의 형식도 다양성이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장복은 성례전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예배를 위한 소극적 토착화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그 사회와 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게 됨으로 그의 제언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을 본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고수를 통한 은혜의 선언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오늘의 시대와 비교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연구와 노력에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예배와 강단을 위한 그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예배와 강단이 더욱 풍성해 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Resources:

- 정장복,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정장복, 『2003 설교학 개론 부교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실, 2003  
 미간행.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기독교서회, 1990.  
 정장복, 『설교의 분석과 비평』, 서울: 쿨람출판사, 1997  
 정장복, *Preaching for Preachers*,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 하』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정장복, “예배순서의 재음미”, 『기독교사상』, 1985. 5  
 정장복, “설교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관한 소고” 『교회와 신학』 제 22 집(1990. 5).  
 정장복, “성언운반일념으로서의 설교사역이해” 『장신대 교수연구논문집』, 1996. 12